

만남

2018년 3월
통권 15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우리의 십자가-----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의 법-----	4
그리스도인의 유머	권리-----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다시 드리는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선교 : 영적 식별 교육

교회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영적 식별 교육이 시급함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학창시절에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친구, 운동을 잘 하는 친구,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 친구……. 모두가 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고등학교 때 완벽에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고, 또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장가도 남들보다 일찍 갔습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시기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죽고 싶다는 말만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 사는 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긴 결혼하지 않았으니 이혼할 일 없지, 더군다나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배신할 일은 절대 없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친구였지만, 사실은 제가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불행이 자기에게는 큰 감사와 교훈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나눔과 희생을 베풀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황금, 돈, 명예, 지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고통과 시련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볼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했던 것처럼,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순교성인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십자가이기에 그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바로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졌으면 합니다.

주님의 법(시편 119,1-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7장 “하나이신 천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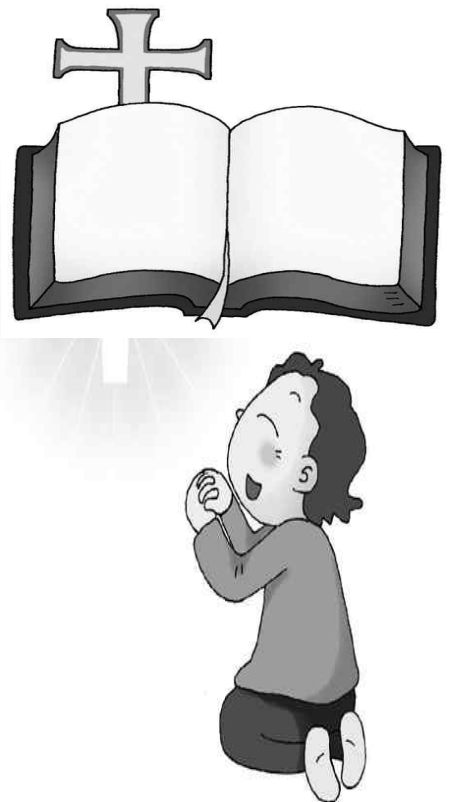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저희가 나누는 작은 사랑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19, 1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 2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3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 4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 5 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 6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119, 7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오리다.
8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돈, 명예, 권력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단순히 소유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재
산, 권력, 지위를 행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재산이나 권력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우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단어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가르침, 법, 법규, 규정, 법령, 계명,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요한 14,21)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말라키 예언자 이후 400년 동안 말씀에 굶주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그 땅 어디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예언자의 소리를 끊어 버린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유머 ❖

♣ 권리

빈민구제활동으로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거의 50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녀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헌신과 수고라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7. '성경'과 '성전'의 차이는?

성경(聖經)이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라면 성전(聖傳)은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지 않는 채 구전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쓰도록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2티모 3,16, 2베드 1,19-21) 이 말은 하느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시어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영감설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제공합니다.(2티모 3,16-17) 그 살아 있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중 단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성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서로 된 것입니다. 성전 즉, 기록한 전통은 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 진리 또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1코린 15,3-4)



8.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Go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느님, 하나님, 창조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고,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신앙인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하느님은 우리말로 하늘, 한자로는 천(天)의 존칭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높은 하늘은 그것을 창조한 절대자를 상징하며, 인류 종교 현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종교 표현입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1971년,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성서 공동번역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개신교에서 이를 거부하며 천주교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오해하여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뿐인 신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신, 절대자이신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둘 때 비로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탈출 3,6)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13)



9. 파스카에 담긴 뜻

파스카(Pascha)란 ‘통과하다’ 또는 ‘거르고 넘어가다’는 뜻의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된 말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1230년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려는 파라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 모든 만물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고 나머지 집은 모두 재앙을 당했습니다.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탈출 12,23)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켰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이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결과 자유를 얻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감명 받은 그들은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 그 사건을 기념하고 대대로 자손에게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걸고서라도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역시 이 파스카의 축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마태 26,18)

예수님께서서는 이 만찬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수난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다시 드리는 기도(이해인 수녀님의 ‘사랑의 얼굴’ 중에서)

주님,
 제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대신
 울어 줄 수 없는 슬픔과
 혼자서만 감당해야 할 몫의 아픔들을
 원망보다는
 유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이 고독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계시기에
 고독 또한 저를 키우는 산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끝없이 불러야 할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깊디깊은 마음의 샘에서
 줄기차게 끌어올리는 신뢰와 사랑이
 당신께 드리는
 제 기도의 시작이요 완성이오니
 주님,
 이렇게 다시 드리는 저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질문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글을 잘못 올리거나 말실수를 하면 사방에서 성토하는 글들이 덤벼들고 심지어는 인격모욕 차원을 넘어 아예 사람의 인생을 말 그대로 작살내는 것을 보면서 저 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저 겁만 납니다. 자살하는 연예인들 심정이 이해도 되고요. 올림픽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병적인 현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 한이 품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소위 삼류언론사들이 퍼뜨리는 말들을 닮아가는 병적 현상이 점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극단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흑과 백, 내 편 네 편, 아군과 적군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갈라 세워놓고 마치 인민재판 마녀재판을 하듯이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나라에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우울증 모드로 접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심리치료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병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사람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면 심리적으로 잔인해져 무리 가운데에서 약한 자를 골라서 공격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무리의 공격성을 해소할 희생양을 찾는 병적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 상황이 별

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국민 정서가 우울 모드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니 몸은 자유로우나 정신은 이미 감옥 안의 죄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위정자들이 나서서 치유해야 하는데 때로는 위정자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오래 전부터 위정자 중에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려고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변칙적인 방법을 비일비재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이나 공산혁명 중에 일어난 인민재판,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독일 국민이 히틀러의 연설에 넘어가서 유대인 학살에 동의한 것 등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님 역시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이 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미사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탓이요’를 해야 합니다. ‘내 탓이요’란 무조건 내 탓으로 여기란 말이 아니라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분노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반동 형성 즉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이 지나쳐 시기 질투심으로 반대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나 또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도를 넘은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표현 정도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치유책은 선행을 하는 습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행위는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비난은 적을 만들고 선행은 나의 사람을 만든다는 가장 간단한 법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아쉬운 시대입니다.

사랑의 선물(김진호 프란치스코)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에 내 마음이 흐뭇해 온다. 오늘은 설날이라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서 명절이 되면 모두 불러 함께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은 애들이 어려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인지 일 년에 두 번 맞이하는 명절 때가 가까워지면 애들은 잊지 않고 매년 전화를 해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온다.

처음에는 전화해서 확인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 명절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여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독일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기에 우리 문화를 특별히 배울 기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식들과 사위 그리고 손자손녀들에게 감사하고 싶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마음이 뿌듯해온다. 우리는 제사상을 함께 준비하고 조상님들께 술잔을 올리고 큰절을 하면서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애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애들과 만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배를 받으려니 웬지 이상야릇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나간 삶들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찡해오고 고개가 숙여진다. 순간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오랫동안 나의 꿈은 빨리 돈을 벌어서 모국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쉬움들 때문에 후회를 그리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지난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에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다행이도 애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여식들과 손자손녀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싶다.

하느님! 오늘까지 우리가족에게 사랑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딸 둘

사위 둘 손자 넷 손녀 하나 이렇게 열 한명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갓 세 살 난 손녀 소희는 짙어지고 온 배낭을 내려놓고 “오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선물뭉치를 건네주면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고마웠다. 소희가 짙어지고 온 선물을 받아들고 “이게 뭘데?” 하고 물었더니 딸애가 대신 대답을 한다. 글썄 소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즐겨 가지고 놀던 인형을 종이에 싸기에 무엇 하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줄 선물이라고 하며 배낭에 짙어지고 왔다는 것이다. 어린애기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마음 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소희는 일 년 전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그것도 하루에 두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Opa, Oma”를 부르면서 무어라고 종알대기 시작했다. 전화기에 우리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 2번을 누르면 “Opa, Oma”와 통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소희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혹시라도 전화가 없으면 내가 전화를 걸어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한다. 통화 중에 할 말이 없어서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젠 제법 따라 부르기도 한다.

더 귀여운 것은 식탁에 앉으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이마에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서둘러 식사기도를 따라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동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순간도 요놈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없이 행복하다.

소희는 한국 사람의 핏줄이라서인지 두부와 김치찌개를 많이 좋아하지만 한국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다 즐기며 맛있게 먹기에 정이 가고 더 귀엽기만 하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왠지 조금씩 슬퍼지기도 한다. 지금의 이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작은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며 오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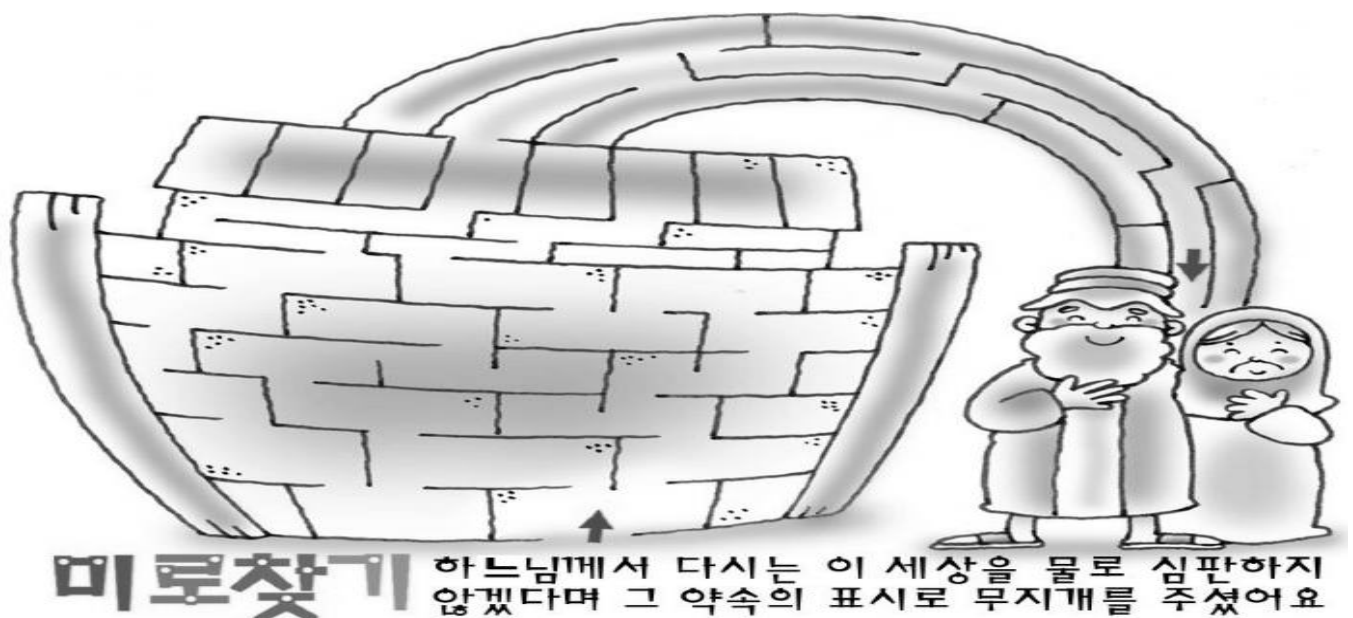
1일	요 안 나	김 주 영	9일	카타리나	오 경 은
3일	가 밀 라 (St. Camilla)	허(이)명자	19일	요 셉 (St. Joseph)	이 현 목 한 규 호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미량(H)	19일	요 셉 (St. Joseph)	문지서(H) 이재홍(O)
12일	세라피나	김보경(H)			
13일	살 롬	현우(H)			

❖ 3월 성가번호 ❖

3월	입 당	봉 헌	성 체	과 건
4일	280	220	198	119
11일	118	212	500	117
18일	115	511	182	121
25일	가 족 미 사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4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2구역
11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3구역
18일	정명옥(살로메) 김애란(세실리아)	배성우(도니미코) 심은희(안나)	청년회	4구역
25일	가족미사			청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28일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계(€)	228.08	273.93	193.40	428.69
헌납금	310	410	70	0
구작입금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1,2700.00 * 헌납금 총 합계 2,06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1월 28일 - 2018년 2월 18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이석우, 이궁중, 이종화, Sebastian 문수진, 진윤희, 최장용,
 윤예진, 김형용, 이현록, 신비아, 정정숙, 서세원, 김경미,
 김진, 방은일, 강순행,



구좌입금 :

남궁준배, 박영희, 이정훈, 허두옥, 김보경, 김지수, 김진호,
이상봉, 김유석, 최종금, 옥종인,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최현봉,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3월 1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가 있습니다.
2. 3월 4일 일요일 주일미사 전 12시에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마지막 교리반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3. 3월 6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만남성당 회합실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4. 3월 7일 수요일에는 퀴닉스빈터에서 유럽 사목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임신부님과 회장님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5. 3월 8일 목요일부터 3월 11일 일요일까지 퀴닉스빈터에서 유럽 혼성 꾸르실료가 진행됩니다. 본당에서는 이연우(마리안나), 이정훈(요나스), 두 분이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3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는 유럽 한인성당 교환사목이 진행됩니다. 뮌헨 한인성당의 최석환(요셉) 신부님께서 우리 함부르크 한인성당으로 오실 예정이며, 주임신부님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신부님과 더불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7. 3월 19일 월요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대축일 미사를 19시에 만남성당에서 봉헌합니다.

8. 주임신부님은 3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오슬로 공동체를 다녀옵니다. 오슬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꾸리아의 아치에스 행사는 3월 24일 토요일 11시에 만남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레지오 단원뿐만 아니라 협조 단원도 레지오의 봉헌사열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 3월 25일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성주간이 시작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성지가지 하나씩 집으로 가져가시기를 청합니다. 이 날, 가족미사를 봉헌합니다.

11.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 29일, 19시)에는 지금껏 해 왔던 대로 주교좌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12. 주님 수난 성 금요일(3월 30일, 15시)에는 예수 성심 성당에서 예수 성심 성당의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수난 예식을 봉헌합니다.

13. 부활 성야(3월 31일 토요일, 20시)에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부활대축일도 소중하지만 부활 성야야말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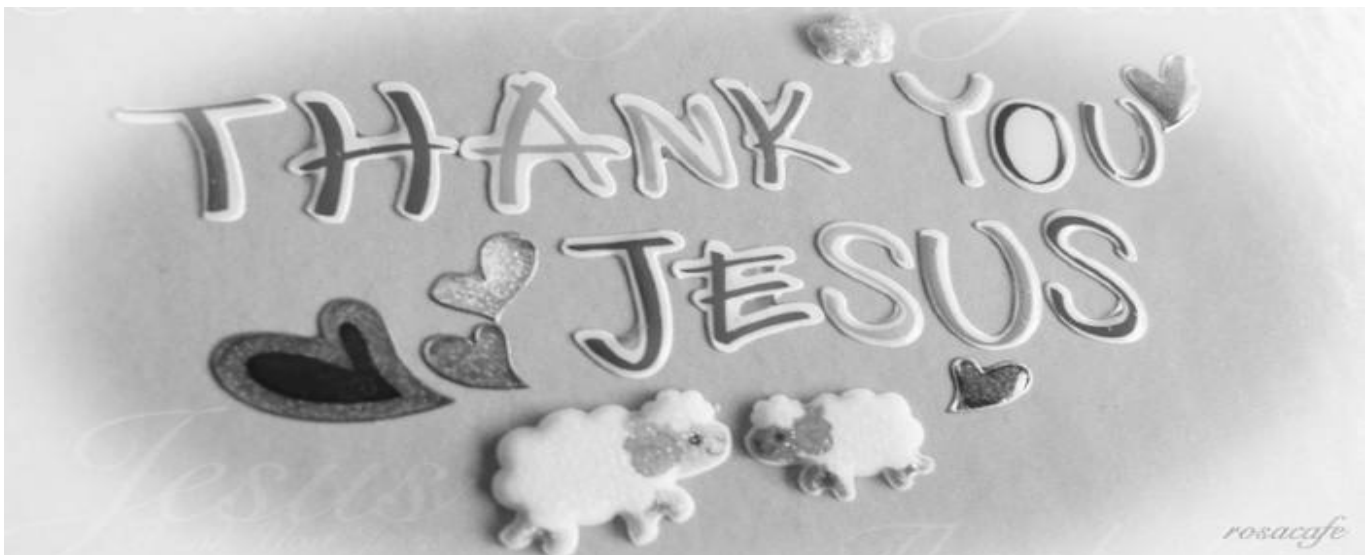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2월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3월 공동체 미사는 3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뮌헨 한인성당의 최석환(요셉) 신부님과 함께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2월 10일(토) 세계 병자의 날 기념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구정을 맞이하여 신부님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파티와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2. 3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노금순(데레사) 회장님 댁에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3. 3월 공동체 미사는 3월 9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방조영자(젼마)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O.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김정숙(마르타)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젼마)	
			총 무	육종인(베로니카)	
정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3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삼일절	믿음의 샘 뿌리아	
2	금			
3	토			브레멘 공동체
4	일	사순 제3주일	예비신자교리	
5	월			
6	화			
7	수			
8	목			꾸르실료(11일까지)
9	금		2구역 소공동체	
10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1	일	사순 제4주일	청년 소공동체	
12	월			
13	화			
14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5	목			
16	금			
17	토		교환사목(뮌헨 공동체 최석환 신부님)	하노버 공동체
18	일	사순 제5주일		
19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19:00 만남성당 미사	
20	화			
21	수			
22	목		연령회	
23	금		4구역 소공동체	
24	토		11:00 아치에스	오슬로 공동체
25	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가족미사	
26	월			
27	화			
28	수			
29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교좌 성당	
30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15:00 예수 성심 성당	
31	토	부활성야	20:00 만남성당 강당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